

■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인도: 전종남 목사

- *송 영 / 찬 양 대
- *영 광 송 / 1장
- *성시교독 / 10.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1-8).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545장

대표기도 / (1부) 윤진태 안수집사 (2부) 윤결태 장로

헌금봉헌 / 51장 (1절)

성경봉독 / 사무엘상 17:45~49

찬 양 / (2부) 시온찬양대

말 씬 /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사람”** / 전종남 목사

(The Man Who Defeated Goliath by Faith)

찬 송 / 357장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노래 / 620장 (1절)

*축 도 / 전종남 목사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 오후 3시 30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100:2)

인도: 전종남 목사

찬 송 / 449장, 455장 기 도 / 김상금 권사

성경봉독 / 히브리서 13:7~17 찬 양 / 호산나 찬양대

말 씬 /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 전종남 목사

(Imitate Their Faith.)

■ 저녁 7시

인도: 전종남 목사

찬 송 / 216장, 220장

성경봉독 / 디모데전서 5:1~16

말 씬 / **“성도들을 대하는 바른 자세”** / 전종남 목사

(The Right Attitude Toward the Saints)

■ 주일~금 새벽 5시

■ 저녁 8시 40분

마태복음 강해 / 전종남 목사

인도 / 심상현 목사

다음 주간 기도

주일 1부	주일 2부	주일 오후
김춘자 권사	이상혁 장로	김연주 권사

예배 위원

3월	1부	2부
안내	문미경	최승태 김영덕B 유경순
헌금	강현주	양락석 김영화 우말순 전복희

헌금자 명단 (온라인 헌금 농협 301-0134-5884-21 강서제일교회)

십 일 조	김명순 김복례 김영화 김정순 김춘예 남정옥 노상현(이정숙) 라제팔(전복희) 배복수 오진솔 윤태향 이상혁(송미숙) 임윤경 임진수(정해순) 전소원 홍우표(윤명란)
감사헌금	전종남(최경애) 김명순 김복례 김선정 김순천(연윤희) 김형문(신승희) 남정옥 노상현(이정숙) 라제팔(전복희) 문상필 박삼강자 박제우(임윤지) 심상현 유병용(황하연) 유진원(유예원) 윤진태(이기숙) 윤태오(김현아) 이대기(박선진) 이상혁(송미숙) 이옥미 임진수(정해순) 전준형(전소원) 정규식(이석란) 홍우표(윤명란) *자녀소원: 김성학(류윤영) *월삭: 연윤희
선교헌금	김복례 남정옥 박삼강자가정 배복수12월 배복수 이대기(박선진)
구제헌금	김성학(류윤영) 김형문(신승희) 무명1
교육헌금	김복례 김정순 배복수 이대기(박선진) 이상혁(송미숙) 임진수(정해순)
주일헌금	김영덕A 무명1 *부서헌금: 유초-중고

지난주일 오전예배 설교요약 (2.22.)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왕하2:8~14)

전 종 남 목사

오늘 본문은, 스승 엘리야의 승천 이후, 그의 사명을 이어 받은 엘리야의 신앙 고백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엘리야의 걸음을 주워서 요단강물을 치며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1.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9절).

“...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엘리야의 소원을 물어보았을 때, 엘리야는 세상적인 형통이나 물질은 구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엘리야보다 갑절로 임하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안락함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큰 믿음과 큰 기도 제물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에 비례합니다. 큰 믿음으로 간구하여, 큰 은혜와 능력을 응답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2.우리에게도 엘리야처럼 승천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11절).

“...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들려 올림을 받아’(휴거),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은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3.하나님의 능력은 사명을 위해 주어집니다(14절).

“...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엘리야가 건너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으며 요단강물을 치니, 엘리야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도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은,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서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우리도 엘리야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을 열어주시고, 맡은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엘리야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